

# 제78회 기독교교육 진흥 자료집

주제: 작은 예수님처럼!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2011. 9. 18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2011. 9. 18~24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 목 차

I. 교육국 총무 인사	1
II.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자료	2
(1) 교육 방향	2
(2) 프로그램 - 작은 예수처럼! :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3
1복 / 마음이 가난하다고? 천국이 네 것이야!	3
2복 / 울고 있니? 예수님이 위로하셔!	5
3복 / 온유한 사람 모여라~ 다 같이 땅 따먹자!	6
4·5복 / 의와 거룩함을 사수하라~ 자비의 마음이 생길거야!	7
6복 / 지금은 내 마음을 청소할 때!	8
7복 / 나는야 피스메이커! (Peacemaker)	9
8복 / 좁은 길로 가볼 테야!	10
(3)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온 교인 성찬예배	13
(4) 교사 격려 및 권장	15
(5) 환경 구성	16
III.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설교자료	18
IV.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교사 묵상집	
(1) 묵상 활용법	
① 상상력을 통한 말씀 묵상(Pray with Imagination)	
② 큐티(Quiet Time)식 말씀 묵상	
(2) 묵상 자료	
① 상상력을 통한 말씀 묵상 실례	
② 큐티(Quiet Time)식 말씀 묵상 자료	

## I. 교육국 총무 인사

### 제 78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9월 셋째 주일(18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좋은 인격을 함양함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전국 감리교회가 지키는 특별주일입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는 교회학교와 교회 청년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의 중요한 인재들을 육성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불모지와 같았던 대한민국의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 배재, 이화, 배화, 영명 등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감리교에서 시작한 사학들을 통하여 훌륭한 민족적 지도자를 배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교인들은 교인다움을 상실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 우리의 교육적 실패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교육은 단지 성경과 교리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기독교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살고, “작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리교 새 교육과정 “은총과 성화”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주일학교 교재, “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옛 교육의 패러다임이 오늘의 현실을 초래 했다면,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절실 합니다. “은총과 성화”의 교육과정은 “은총과 성화의 학습과정”입니다. 감리교인은 성화의 학습과정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성품을 날마다 성화 시킵니다. 내면의 복음화인 성화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일상을 천국화 하자는 것이 “은총과 성화의 교육과정”입니다. 나의 일상이 천국이 되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천국을 보게 되고,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초대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전도요, 축복된 삶인 것이다. 내 속에 “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고, 사람들이 내게서 “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천국)”을 보게 하자는 것이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금번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에는 “은총과 성화”의 새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새 교재, “작은 예수님”을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 입니다. 금번 제 78회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행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으로 누리는 행복한 어린이들이 차고 넘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이화식 목사

## II.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자료

### (1) 교육 방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2)*

지난 2011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교회협의회(WCC) 본부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PCID)의 대표가 공동의 선교 문서를 발표했다.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가 그것으로, 세계 기독교 전체의 90%에 달하는 교세를 가진 세 기구가 기독교 선교에 관한 “하나의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sup>1)</sup>

WCC·WEA·교황청이 5년간의 논의 끝에 공동문서 채택한 위 선교 문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이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것(선교)을 추구할 때 고수해야 할 ‘원칙’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함을 내세웠다.<sup>2)</sup>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는다.’는 이 원칙은 선교적 영역을 넘어 양적 성장의 정체와 점점 사회적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는 21세기 한국교회, 특별히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감리교회의 꿈나무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기독교교육의 원칙이 된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개신교인 숫자는 800만 명 이하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천주교는 7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의 양적 성장의 정체 및 둔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한국 개신교가 ‘예수를 믿는 것’에만 관심한 채,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 즉 성화에 둔감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한국 개신교회와 교인들이 ‘교회다움’과 ‘교인다움’을 상실했다는 말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세상과의 ‘불통’에서 ‘소통’으로 전환하는 교회로 탈바꿈시키며, 진정한 ‘교회다움’과 진정한 ‘교인다움’을 실현해 내기 위해 다시금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성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작은 예수 교육’을 실현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고귀한 감리교회의 신앙 유산을 전수해야 할 것이다.

존 웨슬리에 의하면 성화와 완전성화는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의로움과 거룩함’의 완성이다. 웨슬리는 에베소서를 인용하여 성화와 완전성화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과 4장 15절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는 성숙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 말하고, 에베소서 4:23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완전 사랑, 완전 성결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다.<sup>3)</sup>

1)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6월 28일자, ‘세계 기독교, 전도에 관한 하나의 행동 규범 갖는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7907>.

2) 원칙 2.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는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과, 그리고 특별히 신앙 간증의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6월 28일자, ‘[다종교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 전문’,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7908>.

3) 참조. 김홍기, “제4차 교육과정의 신학적 해설,” 「제4차 감리교 교육신학과 과정 : 은총과 성화」(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08), 18.

특별히 웨슬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성화의 교과서로 애용하려고 권고하였다.<sup>4)</sup>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5:3-12에 기록된 소위 ‘8복’을 ‘참된 종교의 전모 8가지’로 이해하면서,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 팔복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가는 것입니다”<sup>5)</sup>라고 말하였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하늘나라에 저축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나누어 주는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은 예수 제자, 작은 예수 되는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웨슬리는 해석한다.

따라서 금번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에는 ‘제4차 감리교 교육신학과 과정’에 발맞추어 성화의 교과서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가는 길잡이인 ‘8복’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을 맞이한 교사와 학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얻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미 얻은 것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sup>6)</sup>*

## (2) 프로그램 - 작은 예수처럼! :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존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산상수훈의 8복의 순서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8복’을 구체화시켜 학생들이 ‘8복’의 순서대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해 나갈 때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 **참고** - 1복부터 8복까지 각 교회 부서실 혹은 교회 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각 교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부 단계를 축소하거나 2~3주에 걸쳐 진행할 수도 있다.

### 1복 / 마음이 가난하다고? 천국이 네 것이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자를 말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회개하는 심정을 갖는 자입니다.”<sup>7)</sup>*

4) 참조. Ibid., 19.

5)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2」,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공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6), 75.

6) Ibid., 76.

7) Ibid., 77.

■ 목적 :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기를 바랄 때, 그 때에 비로소 하늘나라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 안에서 자랄수록 나의 마음 속 적의와 우리 몸의 의와 참된 경건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심술궂은 마음을 회개하고 나를 속하시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함께 나를 던져 버리는 시간을 가져본다.

■ 준비할 것 : <마음이 가난하다고? 천국이 네 것이야!>

제목이 적힌 개인별 종이(5개의 항목제시), 필기도구

■ 마음이 가난하다고? 천국이 네 것이야! 5가지 항목 제시문

- **나는 누구인가 알기**- 현재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겸손 배우기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
- **나의 약함 깨닫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완벽하게 살 수 없고 나 스스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다.
- **회개하는 마음 갖기(심술궂은 마음 회개하기)**- 내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심술궂은 마음이 있다. 의를 따르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마음을 회개한다.
- **나를 예수님께 맡기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랄수록 나의 마음 속 적의는 사라지고 의와 참된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남을 깨닫는다.
- **내 삶속에서 천국을 맛보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약함을 깨닫고 속하시느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나는 가정, 학교, 교회에서 천국을 가진 자(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가는)로 살아갈 수 있다.

■ 진행요령(tip)

√ 저학년일 경우(유아, 유치) 간단한 손유희나 음률로 ‘가난한 마음’은 이런 것이예요! 라고 유아들과 함께 배워본다.

♫ 올라가는 눈, 내려오는 눈 음률 맞추어(예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천국이 바로 바로 나의 것!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해요!  
어두운 마음~ 네 맘 아네요~의와 평화 기쁨 있는 하늘나라!

√ 교사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단순한 ‘복’ 받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며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때까지의 약속의 땅의 여정임을 기억한다.

## 2복 / 울고 있니? 예수님이 위로하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자신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sup>8)</sup>

- 목적 : 우리에게서 떠난 줄 믿었던 시험과 죄는 다시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그 중압감에 고민하며 슬퍼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광명을 비추어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슬픔 앞에 세상 모든 죄악의 기쁨과 어리석음과 허영, 유혹, 경솔함, 사려 깊지 못함을 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다. 예화를 통해 금방 떨어질 낭떠러지(장애물) 앞에 빛의 비춤을 받은 우리는 단호히 ‘멈춰요, 더 나아가면 안 돼!’ 외쳐보고 이 땅 위에서 모든 불행과 죄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경험을 해본다.

- 준비할 것 : 예화(역할 담당 교사 2명), 예수님 역할 교사 1명, 눈가리개, 의자, 장애물

- 예화문<sup>9)</sup>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 1 : “아차, 큰일 날 뻔 했구나, 우리는 지금 위험한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어도 금방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거예요.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어서 멈춰요!”

사람 2 : “아니, 이 사람이! 난 시력이 4.0 이라고요! 낭떠러지는 무슨 낭떠러지 입니까?”

- 진행요령

- √ 예화 역할 교사는 예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 √ 예화가 끝난 후 준비된 여러 개의 의자를 일렬이나 동그랗게(공간에 맞게 배치) 배치한다.
- √ 의자 배치가 끝난 후 교사는 학생 1명의 눈을 가리고 의자 위를 걷도록 한다.  
(눈이 가리어져 있다는 것은 어둠을 뜻한다)
- √ 의자 위를 스스로 혼자 걸어갈 수 있고 교사의 도움(예수님 역할: 슬픔 가운데 광명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받아 결승점까지 걸어갈 수 도 있다.
- √ 결승점 끝에는 장애물(물이 담긴 세숫대야나 끈끈한 테이프가 붙여진 박스-박스 바닥에 끈끈한 부분을 위쪽으로 붙인 것, 여러 다른 장애물)이 놓여 있다.
- √ 눈을 가린 학생이 결승점에 도달하여 마지막 장애물(낭떠러지-눈을 가리었기에 낭떠러지를 볼 수 없음)을 건너려 할 때, 나머지 학생들은 장애물(세상의 죄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제 범하는 생활 속 죄, 죄를 범하고 싶지 않지만 수시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을 밝히려는 학생에게 “안 돼, 낭떠러지야. 멈춰!” 라고 큰소리로 외쳐준다.
- √ “안 돼”라고 외쳐준 학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며 시력이 4.0이라고 자신하는, 그러나 당장 눈앞의 낭떠러지는 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함께

8) Ibid., 84.

9) 참조. Ibid., 87-88.

‘슬퍼(울어)해 주는’ 자들임을 말한다.

### 3복 / 온유한 사람 모여라~ 다 같이 땅 따먹자!

온유의 덕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여

생의 어떤 조건 아래서도 분노나 근심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에도  
평형을 유지하게 하여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마음입니다.<sup>10)</sup>

- 목적 :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의해서 잘 조절토록 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열정(passion)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열정, 이 거룩한 성품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어떤 상황 아래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특히 악한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달갑지 않은 사람)에게도 언제나 온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생활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다. 이들은 가진 것에 대하여 항상 자족하며 그 기쁨이 하늘에 있는 만큼 진정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정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분노와 조급한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 진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온유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 준비할 것 : 온유 체크리스트, 종이(땅이 될), 필기도구, 조각 지우개

- 온유 체크리스트

※ 주의 - 분노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꾼다는 것은 무조건 ‘참아야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경멸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절제함을 의미한다. 온유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나올 수 있는 성품이다. 이 마음은 죄를 대항하는 데에 쓰인다.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교회) 비난한다. 그 때에도 나는 싸우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드럽게 대한다.
- 나쁜 생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때에도 나는 싸우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드럽게 대한다.
- 공부를 못한다고 ‘바보’라고 놀려댄다. 그 때에도 나는 싸우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드럽게 대한다.
- 엄마, 아빠를 무시하며 욕한다. 그 때에도 나는 싸우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드럽게 대한다.
- 내가 못생겼다고 나를 무시하고 멀리한다. 그 때에도 나는 싸우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드럽게 대한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거나 차별할 때에도 나는 싸우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부드럽게 대한다.

10) Ibid., 91.



- 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했을 때에도 나에게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 나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놀리는 친구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한다.
- 친구가 나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도 분노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
-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속상할 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

■ 진행요령(tip-땅 따먹기 놀이 응용)

- √ 땅이 될 종이를 준비한다. 개인이나 그룹별로 진행한다.  
개인별일 경우, 서로의 온유(인내) 차이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진행할 경우 그룹원의 마음이 하나(서로 생각이 다르기에)로 묶여져야만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자신의 온유를 나타내는 공간(집)을 적당하게 배분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온유, 인내도’를 확인하여 땅을 차지해 간다.
- √ ‘인내’가 선택될 때, 조각 지우개나 자갈돌을 튕기어 땅을 차지한다.(인내 할 때마다 지우개를 튕길 수 있지만, 3번에 걸쳐 처음 배정해 준 온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시작해야 한다)
- √ 위의 리스트 이외의 목록은 기타 체크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진행해본다.

#### 4. 5복 / 의와 거룩함을 사수하라~ 자비의 마음이 생길거야!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덕의 총화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종하는 것입니다.<sup>11)</sup>

‘자비’라는 낱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여된 사람에게도  
경멸 대신 깊은 동정과 염려를 나타냅니다.<sup>12)</sup>

- 목적 : 배고픈 자에게 마실 것과 음식이 중요하듯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된다. 자신 안에 의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은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따스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계명(고전 13:4~7)을 찾아 빈칸을 완성하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랑계명을 외워본다.

- 준비할 것 : 성경책, 종이, 필기도구, 사랑 계명 적힌 카드, 사랑은 언제나 찬양 악보

11) Ibid., 96.

12) Ibid., 99-100.

■ 사랑계명 빈칸 채우기 예시

<사랑은 □□하고 사랑은 □□하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 진행요령(tip)

- √ 성경에서 사랑계명(고전 13:4~7)을 빨리 찾아 빈칸을 채우고 외워보는 게임(고학년)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 숨겨진 사랑 카드를 찾는(유아, 유치/저학년) 두 가지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저학년일 경우 숨겨진 사랑 찾기 게임을 마친 후, ‘사랑은 언제나’ 찬양을 배워볼 수 있다.
- √ 사랑계명 카드를 각 교회 부서실 혹은 교회 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숨겨놓고 학생들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형상’을 찾아본다.

**6복. 지금은 내 마음을 청소할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신 사람입니다.  
즉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치 못한 성정과 또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완전 성화에 이른 자입니다.<sup>13)</sup>

■ 목적 :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인가요?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솟아오른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고난을 받아도 무가치하다. 우리의 이웃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위에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의와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한다. 마음의 깨끗함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초한 것인지 진짜? 가짜? 게임을 통해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겨나기를 바램 해 본다.

■ 준비할 것 : 내 사랑이 진짜? 가짜? 목록 표, 진짜? 가짜? 낱말이 적힌 작은 판,  
교사 2명

■ 진짜 가짜 목록 예시<sup>14)</sup>

※ 고린도전서 13장(13:4-6)을 통해 내 사랑의 깨끗함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깨끗함의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한다.

13) Ibid., 110.

14) 참조. Ibid., 100-107.

- 나는 친구의 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게임에서 한 번 진 적이 있다. 그런데 또 그 친구의 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게임에서 졌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참고 끝까지 참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다.(고전 13:4, 7)
- 나는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친구를 너그럽게 용서한다.(고전 13:4, 7)
- 나는 공부는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친구가 시험 성적이 더 좋을 때 함께 기뻐한다.(고전 13:4)
-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상을 받지 못한 친구를 위해 다음에는 그 친구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전 13:4)
- 두 친구의 다툼을 보고 성급하게 한 친구의 편을 들며 ‘네가 잘못 한 거야!’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전 13:4)
-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친구의 말을 가볍게 믿어버리지 않는다.(고전 13:4)
- 나는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비난해도 쉽게 믿지 않는다.(고전 13:4)
-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용히 충고한다.(고전 13:4)
- 체구가 작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전 13:5)
-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힘이 센 친구는 두려워하고 나보다 약한 친구나 가난한 친구들은 무시한다.(고전 13:5)
- 교회 여름 캠프 기간에는 학원가는 것을 포기하고 캠프에 참여한다.(고전 13:5)
- 좋은 시험 성적을 위해 주일예배를 포기하고 공부한다.(고전 13:5)
- 자신이 화가 났다고 하여 도움을 청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 분노를 표출 한다.(고전 13:5)
- 어떤 사람이 이웃을 때리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악해.’라고 앞으로도 ‘저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야’라고 추측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전 13: 5)
- 평소에 미워하던 친구가 선생님께 구중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통쾌하다.(고전 13:6)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전 13:6)
-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 거리로 삼아 험담한다.(고전 13:6)

#### ■ 진행요령

- √ 진짜와 가짜 낱말이 적힌 판을 교사가 각각 든다. 양쪽으로 나누어 선다.
- √ 인도자의 질문에 따라 학생들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여 자리로 이동한다.
- √ 빠른 진행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어 이동하도록 진행한다.

### 7복 / 나는야 피스메이커! (Peacemaker)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다만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당파 또는 의견이 서로 같은 사람이나 믿음의 노선이 같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좁은 울타리를 초월하여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원수까지도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sup>15)</sup>

15) Ibid., 118.

■ 목적 :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의 힘과 재능으로 자신의 명성, 능력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행한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자 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생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화가 깨어진 자리, 평화가 필요한 자리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다리 역할을 해보자.

■ 준비할 것 : 필기도구(매직이나 크레파스), 카드용 종이, 종이 상자 2개(다리의 양 측), 평화의 사진(굶주린 자, 헐벗은 자, 환자, 다툼 사진 등), 풀

■ 진행요령

- √ “내 형제 중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하는 심정으로 선을 행한다.
- √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몸이 아픈 환자,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 서로를 해치며 다투는 사람 등의 사진을 준비하여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평화(예-굶주린 자-빵, 헐벗은 자-겉옷 등)를 카드에 적는다.
- √ 적혀진 평화 카드로 하나의 긴 다리(평화카드를 풀로 붙여 서로 이어준다)를 만들어 본다. 종이 상자 하나에는 ‘하나님 사랑’, 다른 종이 상자에는 ‘이웃 사랑’이란 낱말을 적고, 서로를 연결시킨다.
- √ 개인별로 진행하였다면 개인과 개인의 평화카드로 다리를 서로 이어주고, 그룹별로 진행하였다면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의 평화카드로 평화의 다리를 서로 이어준다.
- √ 또 하나의 커다란 평화의 다리를 완성한다.



## 8복 / 좁은 길로 가볼 테야!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영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는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sup>16)</sup>

■ 목적 : 평화를 위해 일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핍박을 받게 된다.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긍휼이 여기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16) Ibid., 121.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핏박은 의를 위해 받는 핏박이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한 그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데 유익함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옳은 일에 목숨 바쳐 길이 빛으로 남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하여 역할극으로 재현해 본다. 그리고 그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다.

■ 준비할 것 : 유관순, 토마스 선교사 등 예수님을 위해 핏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 진행요령

옳은 일에 목숨 바쳐 길이 빛으로 남게 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할극을 해본다. (참고자료 - CGNTV, ‘1907 믿음의 사람들’ 17))

#### 어린 시절의 토마스

해 설 : 1939년 9월 7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토마스. 그를 키운 것은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청지기 같은 아버지의 삶이었다. 특별히 그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토마스 : 선생님 웨일스어나 영어 말고도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 특별히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는 것 같구나?

토마스 : 동방의 언어가 궁금해요! 선생님은 동방에 가보셨어요?

선생님 : 아니 선생님도 가보지 못했단다. 선생님 역시 동방의 언어를 접해보지 못했어.

토마스 이제 어찌지?

#### 중국 선교사 토마스

해 설 : 언어를 배우는데 남다른 명석함을 보였던 토마스는 동방을 궁금해 하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토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지만, 목회자와 선교사 두 가지의 삶을 두고 청년시절 방황을 거듭하였다. 이후 웨일스의 <신앙부흥운동>은 동방의 선교가 토마스의 사명임을 알게 하는데, 선교사의 비전을 품은 토마스에게 중국은 부르심의 땅이었다. 1863년 6월 4일 목요일, 24살의 청년 토마스는 꿈에 그리던 중국으로 파송 받게 된다.

토마스 :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상을 무너트리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 토마스 나는 네가 선교사가 될 줄 알았단다. 너는 어려서부터 도전정신이 강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

어머니 : 건강해야 한단다. 그리고 위험은 피하렴. / 토마스 : 아버지, 어머니!

해 설 : 1864년 7월 21일, 드디어 토마스와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중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토마스 : (환호) 와! 드디어 중국이오! 캐롤라인, 넉 달 만에 중국에 도착했소!

캐롤라인(토마스의 부인) : (웃음) 토마스, 배에서 떨어지겠어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세요.

토마스 : 캐롤라인, 염려마세요, 너무 기뻐서 그런 것입니다. 저 땅이 중국이란 말이죠!(웃음)

17) <http://www.cgntv.net/culture/program.asp?pid=2052>

해 설 : 토마스는 굉장히 의욕에 찬 선교사였고, 그의 특유의 친화력은 많은 중국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 캐롤라인은 살인적인 중국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좌절한 토마스는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잠시 중단하지만, 그곳에서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

#### 대동강가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해 설 : 1865년 9월 백령도 근처의 섬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권을 전하며 전도하고, 토마스를 중국에 파송한 런던선교회는 토마스의 조선선교를 허락한다.

성도① (여) : 아유! 이 두꺼운 책이 머래요? / 성도② (남) : 아이고 여편네~ 성경이라잖소!

성도① (여) : 성경이 뭔데요? / 성도② (남) : 아이고 참~ (헛기침) 성경이 성경이지 뭐야!

토마스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① (여) : 하나님은 또 뭐래?

성도② (남) : 아 몰러. 몰러.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될 것 아녀!

성도① (여) : 저기요~ 저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 토마스 : 네, 알겠습니다!

런던선교회 임원 : 우리 런던 선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지 이탈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히 당신을 조선으로 보내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토마스 :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해 설 : 이후 토마스가 몸을 실은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근처 대동강에 도착하자 우려하던 대로 조선군과 무력충돌이 발생하는데...

조선군 장군 : 어서 불화살을 쏘라! 적군들은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토마스 :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권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해 설 : 불바다가 된 대동강에 성경을 던지던 토마스는 마지막 남은 성경책을 품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 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되었다.

토마스 : 제발 이것 좀 받아주시오 / 조선군 장군 :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 죽여라

토마스 :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 조선군 병사① : 시끄러워! (발로 찬다)

토마스 :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칼로 제 목을 베겠습니다.

조선군 병사① : 조선은 서양 놈의 것은 받지 않는다.

토마스 : (작은 목소리로 기도한다) 주님 제발 저들이 이 성경을 받게 해주십시오!

조선군 병사② : 아 이봐! 죽을 놈 소원인데 들어주자고, 이봐 줘 보게. (성경책을 받는다)

조선군 병사① : 이얏!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찌른다) / 토마스 : 으윽! 감사합니다 주님!

해 설 : 27살의 꿈 많은 선교사 토마스는 성경책 한권을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훗날 성경을 받은 박춘곤 병사는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고, 그의 가정은 대대로 믿음의 가정 · 장로의 가정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의의 길에 자신을 내던진 토마스 선교사. 그의 믿음과 헌신으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 (3)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온 교인 성찬예배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온 교인 성만찬 예배’ 모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2002년 발간한 「새예배서」에 의한 모델이다.<sup>18)</sup> 이 모델은 「새예배서」의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주일 낮 예배’ 순서와 실례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새예배서」가 추구하는 예배 형식의 다섯 마당<sup>19)</sup>을 기본 구조로 가져가면서, 예식이 길어지는 문제와 시간 배정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편한 것이다.

이 모델이 「새예배서」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번째 마당 ‘말씀의 선포’에서는 ‘성경봉독’의 부분에 ‘복음서’를 추가하고, 집례자가 봉독하게 하여 전통적인 성경봉독의 형태를 갖추게 한다. 세 번째 마당인 ‘감사와 응답’에서도 변화를 주었다. 먼저, ‘합심기도’의 부분을 ‘침묵기도’로 바꾸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들으며 되새기고, 결심하도록 한다. 또한 ‘신앙고백’을 ‘침묵기도’ 보다 먼저 배치하고, ‘중보기도’를 추가시켜, 기존의 ‘대표기도’ 혹은 ‘오늘의 기도’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보다 다양한 목적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네 번째 마당인 ‘성찬’은 찬양의 부분을 간소화 시키면서, 다른 부분을 강화시켜 성만찬의 최대 효과를 유도하면서 시간배정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마당인 ‘세상으로 나아감’에서는 ‘축복송’의 부분을 제외시킨다. 참고로, 성만찬 분급의 방법은 가운데 중앙 통로를 이용해 나와서 분급을 받고 양쪽 작은 통로로 돌아가게 하고, 집례자가 직접 떡을 입에 넣어주고, 잔을 내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한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온 교인 성찬예배’의 특별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온 교인(영아부-노년부)이 하나가 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기독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온 교인이 깨닫게 한다.
- 둘째, 교사는 하나님 앞에 교사의 열정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하나님의 작은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특별 찬양’의 순서를 갖는다.
- 셋째, ‘봉헌 및 목회기도’ 시간에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담임자의 축복기도’ 및 ‘온 교인 축복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 넷째, ‘교회 소식’ 시간에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교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시상 및 격려’ 모범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의 시간을 갖는다.

####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 ※ 전 주 ..... 반 주 자
- ※ 입 례 송 ..... 찬송가 550 장 ..... 다 함 계
- ※ 예배로 부름과 기원 ..... 집 례 자
- ※ 경 배 찬 송 ..... 찬송가 199 장 ..... 다 함 계

18)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과직제위원회 편, 「새 예배서」(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6), 48-50.

19) 1.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2. 말씀의 선포, 3. 감사와 응답, 4. 성찬, 5. 세상으로 나아감. Ibid., 31-32.

※ 죄 의 고 백	.....	다 함 계
※ 용 서 의 말 씀	.....	집 례 자
※ 교 독	..... 교독문 112 번 .....	다 함 계
※ 삼 위 영 가	..... 찬송가 1 장 .....	다 함 계
※ 오 늘 의 기 도	.....	집 례 자

### 말씀의 선포

※ 성 경 봉 독 .....	구약: .....	말 은 이
	신약: .....	말 은 이
	※복음서: .....	집 례 자
특 별 찬 양 .....		<b>교사와 학생*</b>
말 씀 의 선포 .....	설교제목 .....	0 0 0 목 사

### 감사와 응답

신 앙 고 백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	다 함 계
침 목 기 도 .....		다 함 계
찬 송 .....	찬송가 563 장 .....	다 함 계
중 보 기 도 .....		말 은 이
※ 봉 헌 .....	찬송가 50 장 .....	다 함 계
봉헌 및 목회기도 .....	<b>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특별축복기도*</b> .....	집 례 자
봉 헌 응 답 송 .....		성 가 대

### 성 찬

성만찬으로 초대  
성만찬 시작기도  
성만찬 제정사  
성령 임재의 기원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분명례  
분 급  
성만찬 후 감사기도

### 세상으로 나아감



교 회 소 식 .....	교사 격려 및 시상 장학금 수여*	집 레 자
※ 찬 송 .....	찬송가 449 장 .....	다 함 께
※ 파 송 의 말 씀 .....		집 레 자
※ 축 도 .....		집 레 자
※ 후 주 .....		반 주 자

※ 한 곳은 일어선다.

#### (4) 교사 격려 및 권장

그 숲에 가고 싶다. 산에는 거목들이 자라고 그들 사이에는  
아빠 엄마 나무와 키 채기 하면서 빨리 크고 싶어 하는 언니 형 나무들이 자라고,  
더 작은 아기 나무들이 기름진 땅에서 나무 가족들의 보호를 받아 자라면서  
발아래 재잘거리는 시냇물과 동무하는 그 곳,  
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자기를 향해 손 흔드는 나뭇가지들을 내려다보고  
새들이 나무 사이를 오가며 소식을 전해 주며 풀벌레의 합창이 아침을 깨우는 그 숲.<sup>20)</sup>

그 숲에 가고 싶다! 이제 이 숲을 교사들이 꿈 꾸야 할 차례이다. 교사는 별거벗은 붉은 산에 묘목을 심는 산 아저씨처럼 이제 그 숲을 꿈꿀 수 있다. 교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들을 섬기며 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남이 모르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작은 묘목과 같은 영혼들, 물을 주어도 금방 자랄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돌보면 언젠가 그들이 거대한 거목이 될 것이다. 교사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교회에 신세지는 작은 묘목이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장엄한 묘목이 되어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는데 큰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교사는 오늘도 꿈을 꾸다. 특별한 날이기 보다 매일을 특별한 날로 보내기 위해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맞아 다시금 교사로서의 열정과 사명을 단단히 붙잡아 보자.

#### 선생님, 선생님 우리선생님~ 교사를 위한 특별한 식탁

#####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내가 교사인 줄 안다고요? 사실 주일날이 내겐 휴일인데,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헌신하여 충성하면 내게 ‘복’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것 먹이고 싶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내가 교사일까요?

20) 김남준, 「교사리바이벌」 (서울:생명의말씀사, 2007), 17.

**똑똑똑!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 ◎ 찬양 한 곡♫ 선생님을 위로해요. 내 마음 담아 찬양을 준비하여 교사를 격려한다.
  - ※ 저학년일 경우(유아, 유치) 담당하는 지도자(전도사)가 함께 준비한다.
  - ※ 고학년일 경우, 담당 지도자는 한 주 전 광고를 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룹 별로 준비해 볼 수 있다.
- ◎ 감사의 큰 절! 찬양을 마친 후 교사에게 큰 절을 한다.
  - ※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교사 한 명, 한 명에게 절을 하도록 인도한다.
- ◎ 기쁨의 면류관(살전 2:19), 생명의 면류관(약 1:12), 썩지 아니할 면류관(고전 9:25), 영광의 면류관(벧전 5:2~4), 의의 면류관(딤후 4:8)을 만들어 교사에게 씌어준다.
  - ※ **면류관(왕관) 만들기**
    - 준비할 것 : 종이 접시, 가위, 색종이, 풀, 매직, 기타 장식 문구류
    - 만드는 방법 : 종이접시에 색종이나 매직, 장식 문구류를 가지고 꾸민다.
      - 가위로 종이접시 중앙을 잘라준다.(일정한 간격으로 종이접시를 돌려 가며 오려준다)
      - 잘라진 부분을 위로 세워 왕관 뿔 모양으로 모양을 잡는다.
- ◎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교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사 개인에게 5가지의 면류관의 의미를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 ※ 선물은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그러나 선물의 가치는 정말 큰 것으로 준비한다.
  - ※ 책의 선물일 경우, 첫 장에 담임 목사의 따뜻한 한 절 편지를 적어 함께 격려한다.

**똑똑똑! 문 열렸다~ 고맙다. 아이들아!**

- ◎ 자신에게 큰 절을 하는 학생들에게 답례로 교사도 함께 머리 숙여 인사한다.
- ◎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고백한다.
- ◎ ‘앞으로의 이런 교사’가 되겠다고 짧은 다짐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 ◎ 이 기회를 통하여 담임 지도자는 결석 교사를 가정 심방하고 교사는 결석학생을 가정 심방해 본다.

**(5) 환경 구성**

- ①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알리는 방법 하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우리 교사랍니다!” 명예의 전당처럼 교사의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걸어놓는다.(담당부서, 이름 적어 표기)
- ② **방법 둘.** 상반기 교육내용, 사진, 자료 등을 교회 내·외 적당한 장소에 붙여 놓는다. 작은 예수처럼 프로그램 진행할 공간을 구성한다.
- ③ **방법 셋.**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는 길(부서실)에 포스트잇 칭찬 카드를 구석 구석 붙여 놓는다.
  - ※ 포스트잇에(작은 카드종이)는 “우리 선생님은요”로 시작하여 선생님의 특징

및 칭찬하는 글귀를 적는다.

※ 교인들로 하여금 000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선생님의 좋은 성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④ **방법 넷.** 작은 예수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을 구성한다. 제목에 맞추어 본문 말씀을 적어 벽면에 붙일 수 있다.

⑤ **방법 다섯.**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 출입문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부서실)의 문에 기록하여 붙여 놓는다.

※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교사로서의 명령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씀을 기록하여 붙일 수 있다.(말씀 예-살전 2:19, 약 1:12, 고전 9:25, 뱀전 5:2~4, 딤후 4:8)

### III.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설교자료

마땅히 행할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경 본문: 잠언22:6. 요한복음 13:12-15

모든 생물들(식물, 곤충, 동물 등)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 없이 그냥 성숙한 어른이 되고 온전한 생명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미 완성적 미숙아(?)로 태어난 인간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과 훈련을 겪고 주어진 자유의지로 취사 선택을 어떻게 결단 했느냐 에 따라 그의 인생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헌데 에덴동산에서 사탄의 꾀임에 빠진 하와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아담 이후 범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 하고 단절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인 변명 명예 본능 욕심, 이기주의 우상숭배, 술취함 간음, 폭행 전쟁 등 다른 짐승만도 못한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된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과 예능, 물질과 권력과 창의력과 시간과 건강과 미모와 계획성과 모든 좋은 능력 탤런트들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을 따라 악용하니 인류사회는 더 많은 비참한 문제 속에서 파괴되어 가고 망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잘못 된 것을 고치시려고 믿음의 사람도 보내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별도, 고통도, 재앙도 내리시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바로 살기를 원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히지가 않아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간의 아기예수로 직접 오셨습니다. 33년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험하게하시고 교훈 하시면서 교육과 설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한한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범죄 함으로 이 무한한 가능성의 힘을 잘못 활용하여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멸망과 파괴로 치닫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택하신 그의 뜻에 맞게 선택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13:12-15)에서 ”주요 또한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고 행동 하는 일은 처음 어른들(먼저 온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합니다. 따로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어린이는 영어 말을 그냥 합니다. 그냥 보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어린이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세 번 이사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주신 그 좋은 모든 탭런트, 가능성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여 각자 자기대로 훌륭한 열매를 맺어 이기적으로만 살거나, 본능적 자기 욕심으로만 살기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은 나도 남도 불행해지는 나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생각하여 남을 배려하고 사랑 하여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십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닮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될 때까지 진실과 정성을 다 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최 화 병 (\*웰 다잉전문강사 \*화가 \*원로목사)

## IV.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교사 묵상집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 영성이 아이들에게 물 흐르듯이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교사들은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이런 고갈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생명수인 예수님을 늘 마시며 그 물을 교사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소개할 수 있을까?

웨슬리는 성서와 자연에 대한 상상력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이미지 기도를 즐겨 사용하였다. 이 묵상의 특징은 우리의 오감, 즉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모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이다. 동시에 말씀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맞아 오감을 자극하는 맛있는 내 영혼의 밥상을 한번 차려보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한 주간 묵상훈련을 해보자.

### (1) 묵상 활용법

상상력을 통한 말씀 묵상(Pray with Imagination)과 큐티(Quite Time)식 말씀 묵상, 두 가지의 묵상 방법을 안내한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묵상한다.

#### ① 상상력을 통한 말씀 묵상(Pray with Imagination)

- 준비- 몇 분 동안 앉아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한다. 성령님께서 말씀 묵상의 전 과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 인도자가 묵상할 말씀을 정하고 소개한다. 그리고 모두 침묵기도를 하는 중에 인도자가 말씀을 조용히 읽는다.
- 묵상의 시간은 10-15분 정도 주도록 한다.(개인, 그룹별 상황 조절)
-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씀을 몇 번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도록 한다.
- 읽고 난 후 눈을 감고 본문 내용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 성경본문 내용이 온전히 막힘없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 번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 성경 이야기의 장소와 상황이 구성되면 능동적으로 말씀의 사건을 상상하면서 말씀의 사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
  - 예) 마가복음 4장 35절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경우, 갑자기 밀려드는 하늘의 먹구름,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제자들이 당황하며 노를 젓는 모습,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등을 상상하며 본문의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내가 관찰자로 본문을 관상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성경 안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든지,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마음으로 성경 속의 예수님이나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느껴본다.
-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열린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른다.

-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오감을 사용하여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본다.
- 예) 저녁에 지는 석양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우리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분석적인 노력이나 의지의 활동을 멈추고 오감을 통해 석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뿐이다. 여기서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통하여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초기의 노력과 다르다. 이것은 오감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을 더욱 깊이 맛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수동적인 기도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의 목상이 끝나면 예수님과 무엇을 경험했는지 대화를 시작해 본다.
- 예) 예수님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말해본다.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열어 보이는 과정이다.
  - ★ 나는 예수님께 ..... 말한다.
  - ★ 예수님의 반응은 ..... 인 것 같다.
-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예수님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예수님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깨달은 것을 나누어 본다.
- 마지막으로 나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한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깨달은 것을 나누어 본다.
- 그 후에 자유롭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말씀의 나눔 시간이 토론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몇 분 동안 목상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깨달음을 살피고 적어본다.

## ② 큐티(Quiet Time)식 말씀목상

- 준비 -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한다.
- 말씀 - 주어진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읽는다. 빠르게 읽거나 천천히 읽기도 하고, 문맥을 살펴 중요한 단어들을 유의하며 읽는다. 본문의 핵심은 여러번 읽어 충분히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본문의 내용이 어렵다면, 다른 쉬운 번역의 성경들을 참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문을 읽는 중 마음에 어떤 특별한 말씀이나 주제가 부딪혀 오거나, 깨달음이나 느낌이 생기면 그 내용을 속히 노트에 적는다.
- 적용 - 목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적용이 시작된다.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된다. 단,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 나눔 - 말씀을 적용한 결과와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나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두터워지며 참된 공동체가 형성된다.

## (2) 묵상 자료

### ① 상상력을 통한 말씀 묵상 실례<sup>21)</sup>

**묵상 말씀** 마태복음 26장 69~75절

**준비** 몸과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힌다.

**인도자** 말씀을 조용히 읽는다. 10~1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한다.

**참여자(교사)** 눈을 감고 본문 내용을 떠올려 본다. 본문 내용이 막힘없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 번 과정을 반복한다.

말씀의 사건을 상상하며 말씀 사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

사건 속에서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든지,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마음으로 성경 속의 예수님이나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느껴본다.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열린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른다.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오감을 사용하여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본다.

말씀의 묵상이 끝나면 예수님과 무엇을 경험했는지 대화를 시작한다.

**경험한 것 나누기** 말씀을 읽는 인도자가 마태복음 26장 69~75절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나 인도자는 본문 말씀을 너무 빨리 읽어 내려갔다. 교사는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세 번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인도자는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었고 이에 교사는 재차 본문을 천천히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세 번째 본문을 읽을 때에 인도자는 정말 천천히 소리 내어 본문을 읽어주었다. 그런데 본문을 한 참 읽어 내려가던 인도자가 중간에 울먹이면서 잠시 읽는 것을 중단하더니 얼마 후에야 본문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다. 서로의 묵상의 경험을 다 나눈 후에 인도자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인도자는 천천히 성경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장면에서 배반한 베드로<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눈물이 솟구치면서 더 이상 성경말씀을 읽을 수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결국 성경을 천천히 읽는 것은 성령이 상상력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 7일간의 말씀 묵상 본문 - 1일 : 마 5:1-12    2일 : 마 5:13-20    3일 : 마 5:21-48  
(산상수훈, 마 5-7장)    4일 : 마 6:1-15    5일 : 마 6:16-34    6일 : 마 7:1-12  
7일 : 마 7:13-29

21) 임창복 외 3인,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6), 209.



② 큐티(Quiet Time)식 말씀묵상 자료

기독교교육진흥주간 교사말씀묵상

1

일

9월 18일 (주일)

심령이  
가난한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3

· 개역개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새번역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자를 말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회개하는 심정을 갖는 자입니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겸손이 아닌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거해 야 할 교만은 무엇입니까?

---

□ 오늘의 말씀 나눔

## 애통하는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4

· 개역개정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새번역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자신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나는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울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오늘의 말씀 나눔

기독교교육진흥주간 교사말씀묵상

3

일

9월 20일 (화)

## 온유한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5

· 개역개정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새번역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

온유의 덕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여  
생의 어떤 조건 아래서도  
분노나 근심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에도  
평형을 유지하게 하여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마음입니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활용합니까?  
달갑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가진 것에 항상 자족하며  
계속해서 그 기쁨을 하늘에 둘 수 있습니까?

---

□ 오늘의 말씀 나눔

기독교교육진흥주간 교사말씀묵상

4

일

9월 21일 (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홀히 여기는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6-7

· 개역개정

<sup>6</sup>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sup>7</sup>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새번역

<sup>6</sup>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sup>7</sup>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자비’라는 낱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날마다 하나님 사랑에 목마릅니까?  
내 사랑은 이웃에게까지도 향하고 있습니까?

□ 오늘의 말씀 나눔

기독교교육진흥주간 교사말씀묵상

5

일

9월 22일 (목)

## 마음이 청결한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8

· 개역개정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새번역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신 사람입니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된 외식과 가식은 없습니까?

---

□ 오늘의 말씀 나눔

기독교교육진흥주간 교사말씀묵상

6

일

9월 23일 (금)

## 화평하게 하는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9

· 개역개정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새번역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나의 선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함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평화는 무엇입니까?

□ 오늘의 묵상과 나눔

기독교교육진흥주간 교사말씀묵상

7

일

9월 24일 (토)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 성경말씀 / 마태복음 5:10

· 개역개정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새번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영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

평화를 위해 내가 경험한 핍박은 무엇입니까?  
이 핍박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말씀으로 들려지습니까?

---

□ 오늘의 말씀 나눔